

산업발전과 공제조합의 역할

권혁용 건설경제신문 부국장겸 정경부장

설비건설업계가 연구원 설립을 놓고 시끄럽다. 이미 알려진 대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얼마 전 총회에서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의 설립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출범에 필요한 재원을 대한설비공제조합에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공제조합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조합의 돈으로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은 명백한 자산의 유출이며 향후 연구원의 운영비까지 지원하게 되면 조합의 경영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회와 조합 노조, 확대해서 협회와 조합이 돈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더욱이 설비건설업계만의 일도 아니다. 과거부터 종합건설업계나 전문건설업계 등 각 산업계에서 나타났던 문제다. 현재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모두 연구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조합은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설비건설협회가 연구원 설립을 결정하면서 조합에 비용을 안긴 것도 종합과 전문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조합은 협회가 행하는 홍보활동이나 각종 행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조합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합은 조합원들 가운데 협회 회원사가 아닌 업체들도 있는데 협회가 주관하는 일에 조합이 비용을 대는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배임이라며 협회의 비용요구에 불만을 보여 왔다. 그리고 조합이 낸 수익은 배당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이러한 불만은 이번 설비건설업계처럼 주로 조합 노

조를 통해 표출돼 왔다. 주변에서는 이를 협회장이 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제인 조합 경영진을 대신해 노조가 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조합의 입장만 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더욱이 조합의 설립목적은 업체들 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유자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협회와 같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거창한 설립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조합 임직원들이 내심 조합을 건설유관기관보다 금융기관으로 불리길 바라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산업의 큰 틀에서 보면 조합의 주장은 역할을 하지 않은 채 과실만 따려는 무임승차자로 비치기에 충분하다. 조합의 뿌리는 산업이다. 산업이 있어야 조합도 존재한다. 산업이 없었으면 애초 조합은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조합이 지금처럼 독과점 형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것도 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협회가 연구원을 설립하고 산업에 대한 홍보활동과 각종 행사에 나서지는 것은 협회 설립목적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곧 시장의 팽창을 의미한다. 시장의 확대로 가장 큰 혜택을 얻는 것은 산업에 적을 둔 업체들이고 이 들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는 조합일 것이다. 따라서 협회가 산업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에 조합이 돈을 대는 것을 자산의 유출이 아닌 투자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산업발전에 보다 적극 나서는 조합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것이 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길일 것이다. 